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Market Screener: 7월 미 내구재 주문, 2020년 이래로 가장 크게 하락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주 만에 최저치
- CNN Business: 미국 소비자들 '여행과 엔터테인먼트에 더 지출'
- Bloomberg: 잭슨홀 미팅에 전 세계 은행 총재들 모인다

[주택]

- WSJ: 주택 모기지율이 얼마나 높을까?

[취업]

- Bloomberg: 미 청년들, "기술이 더 좋은 일자리 보장"

[한국 경제]

- Bloomberg: 한국은행, 경제 리스크 큰 상황에서 금리 유지
- TechCrunch: 한국 인터넷 강자 네이버,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원격 근무자와 회사 간의 유대감 줄었다
- WSJ: Target 소규모 창고 사용해 배송 시간 줄인다
- Bloomberg: Walmart, Alphabet "최대 6마일 거리의 드론 배송한다"
- CNN Business: Subway, Roark Capital에 매각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Market Screener: U.S. July Durable Goods Orders Drop at Steepest Rate Since 2020

7월 미 내구재 주문, 2020년 이래로 가장 크게 하락

- 올해 7월 내구재 주문 건수가 예상외로 지난 3년여만에 가장 크게 하락해 제조 부문 제품의 수요가 크게 약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7월의 경우 전월 보다 5.2% 감소해 계절조정치로 총 규모가 2천8백5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 6월에 수정 조정치로 4.4% 증가를 포함해 4개월 연속 상승세 였던 주문 건수가 크게 꺾인 것이다.
- 국방 부문 자재를 제외한 새로운 주문은 5.4% 줄었으며 교통 장비가 14% 이상 감소했다.

Market Screener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Drop to 230,000, Lowest in Three Weeks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주 만에 최저치

-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구직 수요가 여전히 건재한 것.
-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셋째주에 신규 청구 건수는 1만 건 감소한 23만 건. 조정되지 않은 기준으로는 약 19만 8천 건 감소하여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지속적인 전체 청구 혜택 건수는 8월 12일 기준 170만 건으로, 감소했다.
- 이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주들은 여전히 고용하고 있으며, 해고도 줄이고 있다.
- 한편 하와이에서는 팬데믹과 산불 발생 이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Americans are shopping less. But the US economic engine is still humming

미국 소비자들 '여행과 엔터테인먼트에 더 지출'

- Macy's는 신용카드 연체가 증가했고, Dick's 스포츠용품은 도난으로 마진이 줄었다. Foot Locker 주가는 30%, Nik 주가는 10일 연속 하락하여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타겟, 홈디포, 로우즈 모두 매출 부진을 겪었다.
- 미국인들은 콘서트나 영화 티켓, 항공료와 호텔 예약, 결혼식 및 스파 등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했던 활동에 지출을 하고 있다. 미국인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미국 국내총생산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
- Deutsche뱅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상품 지출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쇼핑물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지출 방식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는 것.
- “소비자들은 눈에 띄게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며 “상품보다는 여행과 엔터테인먼트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장 평가자이자 투자 회사 회사 Navellier의 설립자 Louis Navellier가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Central Bankers Gather for Jackson Hole Conference

잭슨홀 미팅에 전 세계 은행 총재들 모인다

-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연례총회가 열리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모이고 있다. 금요일 제롬 파월 의장이 개회 연설을 하게 된다.

- 투자자들은 연준이 7월에 22년만에 금리를 최고치인 5.25%~5.5%로 인상한후에 향후 전망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 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금요일 연설할 예정인데 7월 금리 인상후에 향후 데이터에 따라 금리 정책이 결정된다고 한 상황에서 이번 미팅을 통해 9월 결정의 단서가 보일지 주목된다.
- 한편 세인트루이스 전 연방은행 James Bullard 총재는 “올 여름 미 경제 상승세가 연준의 올해 연준의 금리 마무리 정책을 반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는 발언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WSJ: How High a Rate Can Housing Take?

주택 모기지율이 얼마나 높을까?

- 높은 모기지율이 주택 건설 부문에 악재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미국 경제의 밝은 전망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 어제 연방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7월에 신규 주택이 71만4천채 판매되어 작년 6월의 68만4천채, 7월의 54만3천채보다 증가한 수치. 반면에 기존 주택은 7월들어 5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 신규 주택 판매 반등 이유는 현재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적용받고 모기지율이 낮아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의 공급이 압박을 받고 있다.
- 기존 주택의 공급이 적다는 것은 기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WSJ 기사

[취업]

Bloomberg: Most US College Grads Say Trade Skills Bring Better Job Security

미 청년들, “기술이 더 좋은 일자리 보장”

- 고객 연결 서비스 사이트인 Thumbtack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중 9명은 숙련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대학 진학 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은 길이 될수 있다고 답했다.
- 1천명의 청년 대상 설문에서 거의 절반의 응답자는 대학 진학만큼 많은 부채를 지지 않아도 되는 저렴하고 짧은 교육으로 숙련된 기술 부문에서 경력을 쌓은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 최근 수년동안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이 더 많이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

Bloomberg: Bank of Korea to Hold Rate as Risks to Economy Grow 한국은행, 경제 리스크 큰 상황에서 금리 유지

-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가계 부채을 억제하면서 경제 성장 전망 위험 증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명의 분석가 모두 한국은행이 5번째 연속 회의에서 금리를 3.5%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긴축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에 올해 1월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했었다.

Bloomberg 기사

TechCrunch: Korea's internet giant Naver unveils generative AI services 한국 인터넷 강자 네이버,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

- 회사가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인HyperCLOVA X를 출시했다.
- 이에 따라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챗 GPT와 비슷한 인공지능 챗봇인 CLOVA X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BING 에 해당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검색 엔진 Cue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CLOVA X는 8월 24일 부터 영어와 한국어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11월에는 네이버 검색 엔진에 통합된다고 밝혔다.

TechCrunch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he Growing Disconnect Between Remote Workers and Their Companies 원격 근무자와 회사 간의 유대감 줄었다

- 원격 근무자와 회사 간의 유대감이 감소했다.
-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조직과 유대감이 느껴진다고 응답한 원격 근무자의 비율은 28%이다. 이는 작년 32%에서 하락한 수치로, 팬데믹 이후 가장 낮

은 수준이다. 이는 올 봄과 여름에 원격으로 근무한 미국 근로자 약 9천 명을 대상 실시했다.

- 반면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 3분의 1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유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하이브리드 근무자의 경우 35%가 회사의 사명 때문에 본인 업무에 책임을 느낀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이번 조사 결과는 원격 근무가 직원 충성도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여준다. 많은 근로자는 원격 근무를 통해 필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런 연결감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는 것이다.

WSJ 기사

WSJ: Target Goes Local to Speed Up Order Deliveries **Target 소규모 창고 사용해 배송 시간 줄이다**

- 타겟이 소규모 창고들을 사용하여 공급망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타겟은 지난 5년 동안 지역 소규모 창고를 추가한 것이 재고를 줄이고 온라인 주문을 더 빠르게 배송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 “소규모 창고를 사용해 주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네트워크가 복잡해지지만, 배송 거리가 더 짧아지고 유연성이 높아진다”고 물류 전문가이자 공급망 소프트웨어 회사인 ToolsGroup의 최고 경영자 Inna Kuznetsova가 말했다.
- 그는 이 전략을 통해 소매업체는 상품 이동 거리를 줄여 배송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대량의 주문을 처리하는 데 효율적인 창고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타겟은 공급망 변화 덕분에 7월 넷째주 기준 재고율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대차 대조표에 재고가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WSJ 기사

Bloomberg: Walmart, Alphabet to Test Drone Deliveries of Up to Six Miles **Walmart, Alphabet “최대 6마일 거리의 드론 배송한다”**

- 월마트는 알파벳의 Wing 유닛과 협력해 Dallas 지역 매장 2곳에서 역대 가장 드론 배송을 계획하고 있다.
- Wing 드론은 매장에서 최대 6마일 떨어진 곳까지 식품과 생활 필수품을 배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월마트 관계자가 말했다. Wing(Wing)은 미연방항공청 (FA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 알파벳 사업부의 최고 재무 책임자 Shannon Nash는 “운영자는 원격 위치에서 시스템을 감독할 수 있어 조종사가 매장이나 고객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며 “항공기는 스스로 비행하므로 동시에 여러 대의 드론을 안전하게 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인구가 약 22만 명에 달하는 텍사스주 Frisco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에서 몇 주 내로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이 지역 두 번째 매장에도 드론 배송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Subway has sold itself to a private equity firm Subway, Roark Capital에 매각

- 서브웨이가 사모펀드 회사인 Roark Capital에 매각 되었다.
- 로아크는 Arby's, Auntie Anne's, Buffalo Wild Wings, Carvel, Sonic 등 다수의 대형 레스토랑 체인에 투자한 바 있다.
- “이번 거래는 서브웨이의 성장 잠재력과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서브웨이는 로아크와 함께 가맹점주, 고객, 직원 모두에게 좋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서브웨이 CEO John Chidsey가 말했다.
- 로아크의 이번 거래 금액은 약 96억 달러, 패스트푸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 중 하나이다. 로아크는 서브웨이의 경쟁사인 Jimmy John's의 Inspire도 소유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고금리에 미국 주택구매자 모기지 수요 28년 만에 최저

기존주택 매물 부족에 신규주택 판매는 17달 만에 최고

지난주 미국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주택구매자들의 모기지 수요는 2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미 CNBC와 폭스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모기지은행협회(MBA)는 계절조정 지수 기준으로 지난주 모기지 신청이 전주 대비 4.2% 하락, 1995년 4월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금리 인기 대출상품의 약정금리(평균)가 전주 7.16%에서 7.31%로 올라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여파 등으로 평가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금리는 5.65% 정도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